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cok.org@gmail.com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투스텝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에제키엘 2,2-5

화답송



(후렴) 저희는주 하느님을 우러러보 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보소서, 종들이 제 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
- 몸종이 제 안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코린토 2서 12,7L-10

복음환호송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 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6,1-6

성가 | 입당성가 [2]

예물준비 [213]

영성체 [179]

파견 [417]

미사봉헌

연미사	봉헌
백년성 요셉프란치스코	양미숙 마리아
생미사	봉헌
2024년 성령대회에 참가할 모든분 이춘옥 비비안나	양미숙 마리아 양지수 글라라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7월 7일	백이백	강호영	김미혜	김미혜	유정옥	이유스티나 최사도요한-
7월 14일	정유진	송명근	민덕미	민덕미	김영숙	최사도요한 이유스티나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전신자 목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 95,229단

▶**영명일 축하드리며 함께 기도드려요~**

7.1 에스텔 7.3 토마스 7.5 대건 안드레아 7.6 마리아고레띠
7.8 라이문도 7.11 베네딕토 7.15 보나벤투라 7.20 엘리야
7.22 마리아 막달레나 7.23 비르지타 7.24 크리스티나 7.25 야고보
7.26 요아킴과 안나 7.29 라자로,마르타,마리아 7.31 이냐시오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제 28차 미동북부 성령대회**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페6,17
일시: 7/27(토), 7/28(일) 9am~ 버겐 아카데미 오디오리움
초대강사: Fr.김재덕 베드로, Fr.정대영 모세. 참가비: \$40(점심포함)
신청: 재무데스크, 이미숙안나(성령기도회장) 917-579-5072

▶**2025년 부활 세례 및 견진 교리반 모집**

교리 첫만남: 2024년 10/12(주일), 교육관 3A
세례 및 견진일: 2025년 4월 부활시기
일시: 매 주일 오전 11시/교육관 3A
문의: 김효주 수녀 347.834.5784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
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반주가 가능한 본인
또는 주변에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휘자 646-696-4680

▶**청년 레지오 단원 모집**

대상: 20대, 30대, 40대 남녀가 기도 및 활동 나눔, 봉사, 본
당 협조 등의 크고 작은 선교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
*희망의 모후Pr. 매주목 6pm 단장: 정다경마리아347-514-5783
*우리즐거움의원천Pr.매주일11am단장: 이기원 스테파노929-208-5147

▶**교우분들은 미사전 독서와 복음 읽기에 참여합시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미사경본 총지침).
미사전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고 미사에 참례하면 말씀의 식탁에
풍성하게 차려진 말씀의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살과 피가 됩니다.

▶**여름철 미사 참례 복장 안내**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거룩한 공적 예배의 시간입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하느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십시오.
소매없는 옷, 슬리퍼에 맨발, 심한노출은 삼가바랍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공지사항: 축제의 복장으로 가장 품위있
고, 아름답고, 좋은옷을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미사 참례한다.

▶**교우분들은 미사전 독서와 복음 읽기에 참여합시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미사경본 총지침).
미사전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고 미사에 참례하면 말씀의 식탁에
풍성하게 차려진 말씀의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살과 피가 됩니다.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
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소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여행길 메모

가끔은 길을 잃어도 좋아-

가장 멋진 풍경은

낯선 곳에서 만나는 법이거든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NY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NY,NY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NY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 clearlascity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8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Blank advertisement space.

마르코 6,1-6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움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나자렛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왜 그분을 믿지 못하였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하느님의 힘을 보면서도 왜 못마땅하게 여겼을까요? 그들 눈에 예수님께서서는 그저 ‘목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가족들에 대하여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어찌면 그 사람에 대하여 가장 모르고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선입견이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하여 더 알고 하려는 마음을 없애 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일들은 부모와 자녀, 부부와 같이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서 ‘들음’이 중단되지 않게 하십시오. 듣는 것이 멈춘 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앎 또한 멈춘 관계입니다. 하느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이 멈춘 신앙생활은 그분에 대한 앎이 멈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그분을 믿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임마누엘), 함께 계셔도 그분께서 누구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아니 오히려 그분을 알고 하지는 않는 불행한 신앙인이 되어 버립니다. 만일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듣는 것을 멈춘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관계의 회복은 진실하게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김재덕 베드로 신부